

지역 소식통

완주군의회, 계절근로자 이탈자 '제로' 표창 수상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최근 '이탈자 제로(0)'의 성공적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 능력을 보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완주군의회가 유일하다.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11월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체결하고, 완주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29명을 시작으로, 올해 총 14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완주로 입국했음에도 이탈자는 단 한 명도 없어 우수 운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31일부터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23. 12. 15.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PCR 및 신속항원검사(RAT)가 가능한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후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기존의 무료 PCR검사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된다.

무료 PCR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자(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간병인)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에 한되며, 이외의 대상자 △상기 대상자 외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간병인) △고위험 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등은 앞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비용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전북 위상 높다

전북 대표축제로 선정... 내년도 도비 1억원 지원받아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 명성을 이어온 김제지평선축제가 '2024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축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라북도 대표축제는 전문가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김제지평선축제는 기획, 운영, 발전역량, 콘텐츠, 조직역량, 방문객 만족도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내년도에 도비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1999년부터 시작된 김제지평선축제는 지역특산품인 지평선 쌀을 소재로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적 특성을 살린 농경문화와 문화유산을 현대대의



김제지평선축제가 '2024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됐다. (사진=김제시 제공)

감각에 맞게 승화시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동 한마당 축제로 변화를 거듭하며 지금은 김제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된 김제지평선축제는 공간구성에 과감한 변화를 주어 지역 청년들이 참여한 청년 깔깔마당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지평선 마중거리, 친환경 실천을 위한 에코존을 조성하여 김제만의 맛과 멋을 새롭게 선보였고 농경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해석한 벽골제 짚신 퍼레이드와 LED 쥐불놀이, 짚공차기 등 신규 프로그램도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먹거리장터는 1만원 이하의 착한 가격으로 넉넉한 인심과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음식가격 표준화와 가격공시를 통해 지역축제 바가지 논란을 종식시키며 관광객의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지평선축제가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내년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 쉬 없는 일상에 벗어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28일 완주군은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 종합계획 구성을 위해 지난 △17일 봉동읍 △15일 용진읍, 고산면 △27일 삼례읍 순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다.

완주, 만경강 친수공간 조성 박차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완주군이 만경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완주군은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 종합계획 구성을 위해 지난 △17일 봉동읍 △15일 용진읍, 고산면 △27일 삼례읍 순으로 주민설명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 사업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권역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설명회때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해 기본구상안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공개했으며, 추가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완주군은 2차례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구상안을 수립 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만경강 통합하천 자문협의체' 상정 검토 후, 전북지방환경청이 수립하는 '만경강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홍수안전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명품하천을 조성하겠다"며 "인구 10만시대 개막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관광·인프라 확충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와일드 & 로컬푸드, 전북 최우수 축제 선정

대표축제 지원금 7000만원 확보

완주군 대표축제인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가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그동안 완주군은 유망축제로 머물렀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두 단계나 올라서 최우수 축제로 등극했다.

28일 완주군은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심사에서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 도비 지원금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11회를 맞이한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는 '내 삶에 일탈을 선물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더 와일드하고 더 로컬푸드한'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대거 투입·보강함으로써 축제의 주제에 더 명확하고 충실하게 접근했다. 중단했던 시랑천 맨션 물고기 잡기를 부활하고 기존 짚라인 체험과 더불어 트라이스트림 13종과 360도 회전그네, 인공암벽 등 무동력 놀이를 전진 배치했다.

메인 콘텐츠인 화덕체험은 벽돌화덕



28일 완주군은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심사에서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외에 우드로켓 스토브, 스웨디시 토우치, 강통 스토브 등 다양한 야생화덕 등 총 110여 개의 화덕을 집결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와일드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올해 새롭게 선보인 로컬맥주포차는 젊은 계층의 방문객들에게 완주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접근성을 높였다.

완주신활력사업의 액션그룹과 우석대 호텔외식조리학과가 참여해 로컬푸드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로컬푸드 콘텐츠를 선보였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재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재해예방사업 추진 우수지자체로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전국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장려)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16개 시·도(서울 제외), 재해예방사업 1,296개소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사업의 안전관리와 추진실태를 점검해 문제점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한 재해예방사업 추진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김제시는 사업발주 및 예산 집행실적, 현장 안전관리, 재난관리시스템 활용 분야 등에서 추진성과와 집행실적이 모두 우수한 기관으로 인정되었다.

시는 2024년에도 재해예방사업으로 7개 지구에 93억원을 투입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2건(봉서, 춘화지구), 급경사지 정비 2건(오봉, 죽산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2건(마산, 김제역지구),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구축 1건(구산천지구)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평선산단협, 이웃돕기성금 1000만원 쾌척

지평선산단협의회(회장 김대중)는 28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성금 1000만원을 김제시에 기탁하며 '희망 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김대중 회장은 "연말연시 취약계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